

전 남

여수 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市 1억7000만원 들여 1년간 혜택 ... 도내에선 처음

사망 사고시 최고 3800만원까지 보장

여수지역 전 시민이 전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보험에 자동가입돼 1년간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여수시는 29만5000명에 달하는 전 여수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시켜 22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됐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여수시민이 타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통한 기후변화 관심 제고 등을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년짜리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보험지급액은 자전거 관련 사망사고시 최고 38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4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시 ▲진단 위로금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사망사고는 제외된다.

자전거 운행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는데 다칠 경우 최소 4주 20만원에서 최고 8주 30만원을 지급받는다. 벌금을 받으면 최고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최고 300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을 마치고 보험혜택이 제공되는 지자체는 전남에서는 여수가 처음"이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보호 시범도시로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 및 신청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코스모스 피었네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23일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 나산면사무소는 아름다운 지역 경관 조성을 위해 부지 1만㎡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했다. <함평군 제공>

“해남 어란진성 개발가치 높다”

정비·복원 ... 임진왜란 유적지와 연계 관광자원화 해야

郡 응역보고회

해남 어란진성(鎭城)을 정비·복원해 서남해권 임진왜란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열린 '어란 진성 문화자원 지표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응역을 맡은 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원수는 "어란진성 성곽과 민가·주변 문화유적 등 자원조사 결과 역사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의 명랑대첩 승전 근거지였던 어란진과 이진진·벽파진·우수영 등 임진왜란 유적지를 하나의 테마로 관광자원화하면 해남에서 가장 큰 규모인 어란향이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독특한 구조를 가진 수군진성으로 가치와 앞으로 보존정비를 위해 전남도 문화재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학술조사와 발굴을 통해 성문과 관아시설 등을 복원해 역사문화시설로 활용할 것을 해남군에 제안했다.

또 마을에서 매년 지내는 당제의

보존 및 문화재 지정 필요성과 구전되는 어란 여인과 석등동·여남터 등을 묶어 스토리텔링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남군은 오는 8월말에 어란진성 문화자원 지표조사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왜구를 막는 전략요충지였던 어란진성은 지표조사결과 동서 175m·남북 166m로 정방형(正方形)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성곽의 일부와 수군만호비 등만 남아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완도 명사십리에 '해조류스파랜드'

民資 96억 들여 아의 해수풀 등 조성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해조류 스파랜드'가 들어선다.

완도군은 민간자본 96억원이 투입돼 건강과 휴양이 집약된 '해조류 스파랜드'가 내년 5월 준공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스파랜드는 지상 5층·지하 1층 전체면적 4328㎡ 규모로 30개의 객실과 기능성 스파·야외 해수풀·해조류 건강식품을 전시·판매하는 복합적인 웰빙 관광시설이 갖춰진다.

기능성 스파는 미역·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해수에 넣어 가족 또는 소규모 단체별로 개인탕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완도군은 당초 시설 명칭을 '해조류 기능성 식품판매 및 체험센터'로 했지만 명칭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해조류

스파랜드'로 변경했다.

군은 민간 사업자인 (주)국민레저산업과 함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업 이미지 통합(CIP)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조류에는 마그네슘, 인산, 요오드 등 각종 미량원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며 "내년 5월초에 '해조류 스파랜드'가 준공되면 '건강의 섬 완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지난 2005년 12월 신지대교 완공되며 연륙돼 매년 하계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한국전쟁사 간직한 완도대교 철거

올해 원동리~달도 잇는 새 해상교량 건설

한국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완도대교(철교·사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와 달도를 잇는 완도대교가 새 해상교량 건설에 따라 올해말 철거된다.

완도를 뚫로 이어준 첫 다리인 완도대교는 임진강 다리를 옮겨 재조립해 탄생한 한국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것이다.

임진강 철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폭격했던 철골 구조물로 전쟁이 끝난 지난 1963년 분해해 육로로 이송한 뒤 재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대교는 지난 1963년 4월 착공해 5년 만에 완



공했으며, 차도 4.7m·보도 2.9m·총길이 189m로 한강철교와 같은 구조로 건설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대교는 완도를 전국 최고의 '수산군'으로, 관광지로 바꿨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철교가 사라지는 대신 그 옆에 최신 공법의 사장교가 연발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슬로시티 증도에 친환경 전기버스

셔틀버스 5대 운행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 증도에 다음달부터 순수하게 전기로만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신안군은 증도를 '차 없는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들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4인승 전기 셔틀버스 5대를 운행한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전기버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과 갯벌 도립공원 탐방용으로 활용되며 30km의 저속으로 다니며 한번 충전으로 80km를 달릴 수 있다. 차량 지붕에 태양광 박막필름을 부착, 자체 충전도 가능하다. 군은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니어스 새일은행: 5월 31일부터 (최신형 권택버스)

STANDARD	100,000원 (구형) / 110,000원 (신형)
PREMIUM	120,000원 (구형) / 130,000원 (신형)

엘도라도리조트 숙박 - 15명 2박4일

104,000원 (구형) / 153,000원 (신형)

장속바다장어

다이어트식당 개장

011-836280

이태리 좌탁, 식탁 특별전 50%

www.godwin.co.kr

011-836280